

“통합 리더십으로 ‘경제의 불씨’ 살려라”

| 메트로 提言 |

이재명 정부가 4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실정(失政)에 대한 분노와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지난 3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가 직면한 정치·경제·안보 상황은 위급하다. 1998년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나 코로나 사태로 어두운 터널에 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사방이 난제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내우외환’에 맞서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다.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큰 과제다. 민간에 부동산을 원활히 공급하고 과도한 세금은 낮추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원전 산업도 좋지만, 재생에너지 등 장기 국가 에너지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진으로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구제와 경제 허리인 20·40세대의 일자리 대책 마련

도시급하다. 퍼주기식은 안 된다. 나라 곁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키기 힘든 공약과 정책은 욕 먹을 각오로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했으면 한다. 고갈 위기를 맞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도 찾아 나가야 한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북한은 새 대통령 취임 때마다 어김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 왔다.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 우리 혼자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미국 등 우방들과 북핵을 막을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윤 정부 3년간 사실상 주종 관계로 전락한 한·미 동맹이나 다자간 외교를 복구하고 퍼주기식 저자세를 보인 한·일 관계, ‘배척’ 자세로 일관한 한·중 관계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려면 끊임없이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어떤 정책도 펴기 힘들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내놔던 취지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사법부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대선에서 나온 적잖은 표차 승리의 의미를 항상 되새겨야 한다. 내 편만 챙기는 국정을 해선 안 된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발목을 잡아도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길을 가겠다’는 오기의 정치는 갈 길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 “여야 대화도 끊어지고 너무 적대화돼 있다. 대통령이 라도 시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을 만나겠다”, “정치라는 게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다”던 약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야당도 바뀔 수 있고 국민도 박수 칠 것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본과의 정상화’란 외교 치적 쌓기에 몰두한 채 역사적 진실이 내팽개쳐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던 초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만 듣지 않아도 큰 성과일 것이다.

보험이라는 불안



기지 수첩

김 주 형
(금융부)

보험은 불확실성을 담보로 ‘심리적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산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의 숫자들은 그 확신을 뒤흔든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줄줄이 고개를 숙였다. 금리 하락과 부채 할인을 현실화가 겹치자 약속의 담보인 자본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119.93%, 동양생명 127.20%, 캐롯손해보험 68.57%으로 권고치 150%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작년 말 4.1%로 유일하게 미달했던 MG손해보

험은 이번에도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MG손보의 신규 계약을 전면 정지했다.

결국 MG손보가 가진 151만건의 기존 계약은 삼성·DB·현대·KB·메리츠 등 5대 손보사로 넘기고 전속 설계사 460명은 이직을 주선받게 됐다.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은 유지되지만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보험사의 부실은 ‘안전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새로운 위험’을 제시한다. 신규 가입자는 회계표를 들여다보면서 망설이고 MG손보처럼 1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은 보험증권 대신 보도자료를 재확인한다. 보장을 믿고 납부한 돈이 또 다른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역설이다.

금융당국은 K-ICS 권고 기준을 130%로 낮추는 완충장치까지 꺼냈다. 그러나

기준을 내린다고 체감 신뢰가 오르지 않는다. 보험사가 ‘약속’을 회계기법으로 미화하는 동안 시장은 보이지 않는 불안 프리미엄을 청구한다.

보험사들은 급히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찍어내며 ‘긴급 수혈’에 나섰다. 한화생명만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 자금 전액을 K-ICS 비율 제고에 사용한다. 신한라이프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2140억원 주문을 확보했다.

보험은 ‘신뢰 이자’를 받는 산업이다. 그 이자가 거품으로 드러나는 순간 보험증권 한 장은 효력 없는 종이가 된다. 숫자는 회복될 수 있어도 무너진 신뢰는 회계표에 적히지 않는다. 신뢰 없는 보험은 불안 그 자체다. 보험사는 ‘보장’이란 말의 무게를 되새겨야 할 때다. /gh471@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4일 (금 5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마음껏 즐겨라. 48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자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60년생 마른눈에 물들어 오듯이 해결. 72년생 밤을 건너야 찬란한 새벽을 본다. 84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



37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침이 마른다. 49년생 깔끔한 포기가 일을 더 빠르게 진행시킨다. 61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마음을 굳게 먹자. 7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85년생 가장 큰 복구는 자신의 성공뿐이니.



38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 50년생 실력 있는 상사의 도움으로 성과가 높다. 62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일단 관망해야. 74년생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86년생 시간만 속내는 일은 인제 그만하자.



39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1년생 앞에 나서게 되니 타인의 질투를 받는다. 63년생 병도 약도 내 탓임을 잊지 말아야. 75년생 내가 편안해야 자식이 편하다. 87년생 금전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40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편하게. 52년생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에 속는다. 64년생 미래를 위해 청약 저축을 가입. 76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만. 88년생 물은 담은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41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53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잘못은 없는지 생각. 65년생 길 떠나려는 데 산발 끈이 풀려서 지체. 77년생 내 탓에 산다 해도 예의는 지켜라. 89년생 체면치레하다 지갑이 텅 빈다.



42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54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66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78년생 일단 그물을 치고 고기를 기다려보라. 9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해야만.



43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55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 67년생 상대를 존중해주면 마음을 얻어 보람이다. 79년생 부모님의 중여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91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44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준다. 56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바라지 마라. 68년생 아랫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니 주의. 80년생 신념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라. 92년생 화를 낸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인내하는 것이.



45년생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57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마무리. 69년생 공기가 좋지 않으면 마스크라도 쓰는 법. 81년생 인색한 구두쇠 작전보다는. 93년생 길이 없는 곳이라 힘든 여행이 시작된다.



46년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58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70년생 먼 여행을 삼가고 낯선 사람과 여행 조심. 82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마음으로 직장에 성실하게. 94년생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실행대로 행동.



47년생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아보자. 59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71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83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열 번 생각하고 시작. 95년생 사람됨이 순수하다보면 결과가 발생한다.



김상회의四季

복과 화

복(福)을 바라고 복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고 이름에 ‘복’자를 넣는다. 복(福)자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술이 가득 담긴 술병과 제단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예로부터 사람들이 하늘에 복을 비는 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절에 가서도 보면 보시금 넣는 곳 이름도 ‘복전함(福田函)’이다. 복의 터전이 되는 밭, 그러나 복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전함에 자기의 형편에 따라 보시금을 넣는 것은, 복을 바라고 넣는다면 거래가 되는 것이요, 나의 인색함을 줄이고 이 보시금이 공덕이 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넣는다면 그것은 복덕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복과 화는 별개가 아니다. 복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복의 원천을 지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동악성제가 훈계를 내려 말하기를 하루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복은 비록 금방 나타나지 아니하나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방 나타나지 아니하나 복이 스스로 멀어지는 니라.”(東岳聖帝垂訓 曰一日行善 福雖未至 禍自遠矣, 一日行惡 禍雖未至 福自遠). 연이어 나오는 구절 역시 아름답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에 풀과 같아서 그 풀이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날마다 더하여 늘어가는 것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 숫돌이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숫돌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라.”복을 짓는 것이 악과 멀어지게 하니 화를 면하게 한다는 의미까지 있다. 유명한 요변사훈(了凡四訓)에서도 하루 선행 세 번을 꾸준히 실천하여 단명수와 무자식 팔자를 장수와 가문의 창성으로 운명을 개조하지 않았던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8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8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1	8	6	2	9	8
8	9	8	9	2	1	6	1
2	6	1	7	9	8	8	1
7	1	9	8	9	2	1	8
1	9	8	9	6	1	8	7
8	2	6	1	7	8	1	9
6	8	9	2	1	9	7	1
1	7	1	6	8	9	9	2
9	8	2	8	1	7	9	1

8	8	7	1	6	9	1	2	9
9	1	2	8	7	8	9	1	6
9	6	1	9	1	2	8	7	8
1	9	9	6	2	8	7	1	8
7	7	8	8	9	1	9	6	1
6	8	1	7	1	9	8	9	2
8	1	6	9	9	7	2	8	1
7	2	9	1	8	1	6	8	9
1	9	8	2	8	6	1	9	7